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나지원 | 학번 | ██████████ |
| 파견국가 | 필리핀 | 파견도시 | 수빅 |
| 파견대학 | 필리핀대학마닐라(UPM) | 기간 | 2015. 1. 17(토) ~ 2. 13(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UP는 마닐라에 있지만 제가 머물렀던 곳은 수빅에 위치한 TIMES-SLC 어학원이었습니다. 수빅은 마닐라에서 평균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방은 3인 1실로 같이 쓰고, 꽤 넓어서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방 안에 에어컨이 있어 더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래, 청소도 일주일에 2~3번 해주고 숙식이 해결되어 좋습니다. 어학원은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고 밤에 산책이나 운동하기 좋습니다.</p> |
| 수업 | <p>수업은 그룹 클래스와 일대일 수업이 있습니다. 그룹 수업 4시간, 일대일 4시간으로 하루에 총 8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수업시간은 50분, 쉬는시간은 10분입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가 되면 수업이 끝납니다. 수업 내용은 토익 스피킹, 4000 words, 칼렌, article, 이력서 쓰기, 영어회화 패턴 익히기, 이슈 등을 배웁니다.</p> <p>첫 주에 레벨테스트를 하는데 토익과 비슷한 유형의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4가지 영역 모두를 평가하여 반을 나눕니다. 반에 따라 토익 스피킹을 하는 반이 있고 안하는 반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봅니다.</p> <p>과제는 선생님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면 됩니다.</p> <p>선생님들은 대부분 친절합니다. 알아 듣지 못하면 친절하게 천천히 다시 설명해주시고, 최대한 이해시키려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발음이나 어법 등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정시켜 주십니다.</p> |
| Activity | <p>거의 주말마다 나가서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우선, 첫 주에는 소그룹으로 조를 짜서 선생님들과 수빅 투어를 나갑니다. 올롱가포라는 시내를 구경</p> |

| | |
|--|--|
| | <p>하는데, 그 곳에는 하버 포인트라는 백화점 하나와 SM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외식이나 쇼핑은 다 여기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 두군데를 돌고 PUBLIC MARKET이라는 올롱가포 전통시장도 구경했습니다.</p> <p>바다는 총 2번 갔습니다. 뽕타키 바다를 갔을 때는 인당 1000페소(25000원)정도 견어서 사진 찍고 비치 구경도 하며 잘 놀았습니다. 스노클링, 각종 해산물 식사도 포함되어 괜찮았습니다. 크리스탈 비치는 이용요금 없이 우리끼리 식사 등 알아서 준비해갔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하고 저녁은 고기로 해결했습니다. 이 바다는 파도가 세서 깊이 들어가면 위험하지만 적당한 곳에서 놀면 재밌습니다.</p> <p>일정 중 마닐라에 위치한 UP에 방문하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 곳 가서 그 대학 사람들과 게임 등 액티비티를 하고 점심도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p> <p>마지막 주에 소그룹으로 호텔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호텔 수영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싼 가격이지만 여기서는 약 300(8000원)페소 정도 밖에 하지 않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뷰에 식사도 포함되어 있고 수영장도 넓어 가격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p> <p>어학원 바로 앞에 트리탑과 제스캠프 체험도 좋습니다. 둘다 수빅에서 유명하여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정작 SLC 학생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좋은 경험입니다.</p>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현지의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 그 맘 때의 필리핀은 건기라서 날씨가 맑습니다. 비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햇빛이 강하니, 밖에 나갈 때나 비치를 갈 때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이나 잘 때는 쌀쌀할 수 있으니 얇은 가디건 등 간절기 옷을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
| 안전 | 수빅은 필리핀 내에서 안전한 지역입니다. 큰 쇼핑몰 앞에는 가드들이 있는데 항상 총기 검사 등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올롱가포에서나 PUBLIC MARKET에서는 여러명에서 다니거나 뒷골목 같은 곳에만 가지 않는다면 안전합니다. |
| 숙소 | 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

| | |
|----|---|
| | <p>앞에서 언급했듯이, 숙소는 3인 1실로 쓰고 크고 넓습니다. 개인 책상, 옷장 등 다 구비되어 있고 고장나면 금방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어학원 내 수영장이 있어서 평일 저녁에 놀기 좋습니다. 학원 시설내에 별레는 꽤 있습니다. 열대 지방이라 도마뱀과 나방 등이 있지만 익숙해지면 적응이 됩니다. 통금은 평일 10시까지이고 금,토는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다음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평일과 같이 10시까지입니다.</p> |
| 식사 |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학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다 한식입니다. 아침은 스프, 빵 , 샐러드 등 양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필리핀 음식은 좀 짜고 자극적이긴 합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이 많습니다. 외식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 추천을 받는 것이 좋고 필리핀 고유의 음식을 체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스트리트 푸드를 탐방하는 것도 좋습니다.</p> |
| 교통 | <p>학원에서 시내로 나갈 때는 버스나 택시를 탑니다. 콜택시는 부를 때 200 페소 정도 합니다. 버스는 13페소 정도로 버스가 훨씬 이익입니다. 하지만 버스는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복불복이라 가끔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 734,000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용돈 | 450,000 | ACTIVITY+식비+쇼핑+기념품 |
| 합계 | 1,184,000 | |

5. 출국 전 준비사항

가기 전에 선생님들께 드릴 편지나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함께 있다 보니 선생님들과 정이 많이 듭니다. 떠나기 전 수기들을 보면 거의 한국에서 선물을 사가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그냥 안 가져갔는데 가져갈 걸 후회가 듭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냥 살 수 있는 선물이 아닌 한국의 선물을 준다면 더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방수팩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노쿨링 할 때나 필리핀 바다의 수중 생물들을 찍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방수팩을 가져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약은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가면 음식이나 물이 잘 맞지 않아 물갈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3주 째 되었어도 복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사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모기도 꽤 있기 때문에 모기 퇴치제, 모기약 등도 가져가야 합니다.

책은 거의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책을 많이 가져간다면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빠르게 공부하고 싶다면 개인용 단어장이나 책 1~2권을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4주 동안 정말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 계획처럼 수업 끝나고 도 빠르게 개인공부를 하자는 계획은 이루지 못했지만 목표의 50%이상은 성취한 것 같습니다. 본래 목표였던 영어 스피킹의 자연화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내 하루종일 거의 영어만 쓰니 확실히 영어가 더 자연스러워졌고 문법이 맞든 안맞든 말로 표현하려는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하고 스피킹 능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토익 스피킹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배워봤는데 가장 유용했었습니다. 깨달은 점은 단어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답답한 점은 문법보다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단어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좋은 사람들과 재밌게 잘 놀고 즐기다 와서 행복했습니다. 갔다 온 후의 일 주일은 그 곳에 있을 때보다 더 생각이 나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영어도 익숙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 재밌는 활동 다 즐겨웠습니다. 한 번쯤은 가라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경험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뽕타키 비치



크리스탈 비치



UP 방문



그룹 수업



소그룹



호텔 수영장